

육군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n Integrated Management Plans for Corps-Level Army Archives

유셋별(Saetbyeol Yoo)¹, 이성숙(Sungsook Lee)²

E-mail: ysb228@naver.com, infolee@cnu.ac.kr

¹ 제 1저자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학과 전공 석사

²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6-04-07

최초심사 2026-04-22

게재확정 2026-05-08

ORCID

Saetbyeol Yoo
<https://orcid.org/0009-0004-5513-2614>

Sungsook Lee
<https://orcid.org/0000-0003-0897-4697>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은 유셋별의 석사학위논문 「육군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 방안 연구」(2026)를 요약·수정함.

<https://jksarm.koar.kr>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육군 기록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사단급 제대 기록관 운영 체계를 진단하고, 군단급 제대 중심의 통합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하였으며, 육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태와 기록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육군 기록관의 통합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조직 운영 측면에서 현행 사단급 기록관을 지역적·작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군단급 통합기록관으로 재편하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직속의 독립기구로 편성하여 행정적·기능적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인력 운영 측면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통합기록관별 집중 배치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시설 및 인프라 측면에서 독립된 전용 보존 건물 확보와 물리적 보존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단계별 추진 전략을 통해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육군 기록관리 정책 수립과 조직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division-level archiv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my and propose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centered on corps-level echelon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xpertise of Army archives management. To this end, the study employed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methods and empirically analyzed field conditions and perceptions regard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Army archives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conducted with Army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s and practitioners. Four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Army archives. First, with respect to organizational management, existing division-level archives should be reorganized into corps-level integrated archives that reflect region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be reconstituted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Army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Group as an independent body to ensure administrative and functional control. Second, in the aspect of personnel management, the expertise of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s should be enhanced through their concentrated deployment to each integrated archive, thereby ensuring continuity of duties. Third, in terms of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dedicated standalone preservation buildings should be secured, and the stability of physical preservation environment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implementation should proceed sequentially through a phased advancement strategy that follows systematic processes. The study findings may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policy formulation and organization restructuring of Army records management.

Keywords: 육군 기록관, 군단급 통합 운영, 통합기록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국방기록관리
Army archives, corps-level integrated management, integrated archives,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 national defense records managem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록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는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서, 조직의 활동 목적을 가시화할 수 있는 자료이자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육군에서 생산 및 보존되는 모든 기록물 역시 단순 행정자료가 아니라 지휘관의 결심과 부대의 작전 수행 과정이 담긴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군은 임무수행의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겨왔고, 특히 육군은 공공기록물관리 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있어 비교적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육군은 특수기록관으로는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급 이상 부대 및 학교기관에는 기록관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기록물관리에 힘쓰고 있다.

육군은 제도상 사단급 이상 기록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군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설치 단위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군은 작전, 시설, 행정, 법무, 의료, 병력관리 등 제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타 기관 대비 기록관리 수요가 많다는 특징이 있으며, 무엇보다 행정·증빙·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많다고 판단하여 사단급 이상 제대는 기록관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육군에 설치된 기록관 대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부족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국방부에서는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해 2013년 9월부터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부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공공기록물관리법』(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특례 신설에 따라 육군종합행정학교에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2016년부터 시작된 교육은 2024년 2월까지 11개 기수 151명의 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였으나 현재 육군에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진급·승진을 포함한 잦은 인사이동의 사유로 소수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만이 육군 각 기록관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4년 2월 이후에는 법령 특례가 만료되어 더 이상 군 자체적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수기록관인 육군기록정보관리단과 일반기록관인 각급 작전사, 군단, 사단, 학교기관 등 제대별 설치된 기록관의 경우에는 법령상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는 육군의 최상위 제대에 속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이 각급 기록관을 대상으로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각급 기록관은 업무적으로 각급 제대의 인사 부서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가기록원 또한 직접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하 부대에서의 기록관리는 사실상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각급 기록관은 1인 체제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기록관리 실무자가 초급간부로 구성됨에 따라 업무역량 또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대다수 기록관은 법적인 시설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해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가 제한되고 있다.

그동안 육군 기록물관리에 관한 연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운영 및 확보와 육군 기록관리기구 체계 변화의 필요성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부족이라는 인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의 재배치 및 기록관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조직 구조적 관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육군 조직과 임무를 고려하여 군단급 제대가 하위 부대인 사단급 제대의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군 기록관 운영 체계의 제도적 개편을 위한 운영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군의 각 제대별 기록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 기록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육군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부분 보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육군의 기록관리체계와 프로세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인력 운영, 그리고 권역 단위 기록물 통합관리체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현행 사단급 기록관 운영의 제도적 한계와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국방부 내 통합기록관을 실제 편성·운영 중인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을 분석하였다. 공군은 2024년부터 사령부·비행단·전대급 부대 기록관을 폐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담 조직(통합기록관)을 구성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군의 통합기록관 설립 사례를 통해 육군에 적용 가능한 핵심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특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운용 방식, 구조적 조정 방안과 업무의 표준화, 시설과 예산의 효율성에 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사단급 이상 기록관에 근무 중인 63명을 대상으로 KSDC DB 링크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배포하였으며,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를 추가적으로 발송하여 육군 기록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육군 기록관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후, 회신받은 52부(82.5%)에 대한 결과를 KSDC DB와 IBM SPS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에 참여했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추가 진행하였으며, 군단급·사단급 제대 기록관에 재직 중인 3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대면으로 하거나 전화로 진행하였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실무자로부터 현재 육군 기록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기록관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군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1.3 선행연구

육군의 각 제대별 기록관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후 육군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육군의 기록관리체계와 프로세스, 육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인력 운영과 군 권역 단위 기록물 통합관리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육군의 기록관리체계와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로는 국방부와 각 군이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하여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국방기록관리체계의 한계를 분석한 박상준(2022), 국방 기록물관리의 단일화와 효율적 운영의 한계를 지적한 서은아(2018), 전시(戰時) 상황에서 발생하는 군 기록물의 특수성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 김현정(2012), 육군 구성원들의 기록관리 인식이 법·제도적 환경보다 내부 규정과 관행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지은과 김기영(2021), 특수기록관을 중심으로 조직구조 및 기록관리체계를 분석한 장지현(2011), 육군 예하 부대의 기록관 운영 실태를 분석한 서승순(2006), 최윤태(2012), 이홍석(2013), 육군 기록물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서원일(2004)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군(軍), 특히 육군의 기록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육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인력 운영과 발전에 관한 연구로는 이성열(2013), 전계청(2016)이 있다. 이성열(2013)은 육군의 기록 환경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도출하였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군인 신분의 기록관리 전문병과 운영 및 군무원 신분의 기록관리 직렬 신설 등 인사관리 제도의 개선과 발전의 측면으로 제안하였다. 전계청(2016)은 육군 기록관리 기관의 업무와 인력배치를 분석하고, 관리자·실무자의 직무능력과 필요 지식을 설계하여 그에 걸맞은 양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군 권역 단위 기록물 통합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로는 우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을 중심으로 기록관리기구 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한 남기웅(2012)의 연구가 있다. 남기웅(2012)은 사단급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록관을 별도

의 독립된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직속 부대로서 군단급 기록정보부대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였으나 기록관의 통합 운영의 측면보다는 육군 조직체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문헌적 고찰에 국한되었고, 실증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육군은 아니지만 공군을 중심으로 권역 단위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신정숙(2018)의 연구가 있다. 신정숙(2018)은 공군 예하 기록관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인력과 시설을 집중·규모화하는 관리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는 군 내에서 최초로 통합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연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나 연구 대상을 공군으로만 한정하였고, 이 연구 역시 실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실무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육군의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사관리 제도의 변화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중심의 기록관리기구 체계 변화의 필요성 등이 문헌연구를 통해 제안되었으나 기록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안되지 않았다. 실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군에서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육군 기록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록관 통합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육군 기록관리 체계와 통합 운영 모델

2.1 육군 기록관리의 특성과 현행 체제의 한계

2025년 육군의 기록관은 육군본부의 육군기록정보관리단과 육군 직할부대 기록관 7개, 작전사령부 기록관 2개, 군단 기록관 6개, 사단 기록관 33개, 학교기관 기록관 15개 등 특수기록관 1개와 기록관 63개로 구성되어 있다. 육군은 전투수행과 전쟁 억제를 목적으로 조직되어 철저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는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리미드형 계층구조를 기반으로 각 기능별 임무수행함에 있어 상급부대에서 하급부대까지의 시행되거나 완료된 결과 문서가 중첩되도록 하며, 기능별로 표준화된 업무의 반복은 동일한 구조의 기록을 누적하게 만들어 육군의 기록은 중첩성과 반복성을 가지게 한다. 또한 각 부대의 임무와 조직, 장비 편성을 포함한 부대의 주요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문서 역시 대외로 공개하는 민원 및 협조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록물을 군내에서만 열람이 되도록 분류하고 있어 보안성과 비공개성을 강하게 가진다(남기웅, 2012). 이는 군의 사소한 정보나 기록이라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공개되거나 반출 시 대군신뢰도에 영향을 끼칠뿐더러 군의 사기와도 직결되고 더 나아가 적(敵)으로 규정된 조직 및 집단에게 중요한 첩보·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군의 특수성은 기록물의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즉, 육군의 기록은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안보적 자산이며, 국가와 군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독자적 기록 체계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육군 기록관은 방대한 기록물을 단순히 보존하는 공간을 넘어 작전수행과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 자료를 관리하는 기능적인 기관이다. 기록관의 운영 목적은 첫째, 각급 제대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 군사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역사적 증거로 남기는 것이다. 육군에서 운영하는 기록관은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각 참모 기능별로 구분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작전과 관련된 기록은 지휘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군사사 연구, 정책 평가, 전쟁사 기술 등 학문적·사회적 활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록관은 군의 행정과 작전수행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미래 세대에 군의 경험을 전달하는 역사적 보존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육군 기록관 운영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기록관의 최소 단위가 사단급에 머물러 작전 지휘를 통합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군단급 제대의 기록을 수집 단계부터 평가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사단급 제대는 결정적 작전 및 근접전투의 기본 전술제대로서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동참모의장의 작전 지휘 및 육군의 임무와 연계한 기록물 수집 및 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어렵게 한다(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2007). 이는 기록의 단절과 분산을 초래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 둘째,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낮은 인식과 문화는 거의 모든 기록관이 낮은 직급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되게끔 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태이다. 셋째, 조직의 수직적 구조에 따른 업무적 종속 관계는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다(강진영, 2018). 이는 지휘관의 성향과 관심 정도에 따라 기록관리의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힘들게 한다(노미혜, 2022). 넷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부재로 정기적인 기록물 평가·폐기 및 중요 기록물의 선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국방부, 2015). 군 인사관리 제도상 잦은 인사이동은 양성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시키는 큰 요인이다. 다섯째, 잦은 인사이동과 더불어 1인 기록관 체제에 따른 업무적 비효율성은 전문성의 결여로 이어져 법적·제도적 지원을 미흡하게 하며, 이는 기록관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국방부, 2017).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기록의 활용성을 저해시키고, 군사적 책임성 확보에도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그 간 군은 공공기록물관리 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공공기록물법』에서 요구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의무 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실태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7월, 국방기록관리 업무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가 있으면서, 2016년부터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2016년 10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방부에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설립을 인정받게 되면서 2016년 11월 국방기록관리 교육과정이 육군종합행정학교에 개설되었다. 본 교육과정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특례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행되었으며, 총 11개 기수 151명을 수료시켰다. 하지만 조사결과 <표 1>과 같이 국방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수료한 151명 중 기록관에 근무 중인 인원은 12명이며, 수료자 대비 기록관에 근무 중인 비율은 19.0%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군 인사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군인과 군무원은 군 인사관리 제도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간 1개 직책을 수행하며, 그 이후는 인사 심의에 따라 보직 이동을 하게 되므로 국방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전문성을 갖추기에 제한된다. 이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특례조항 기간은 만료되었고, 국방기록관리 교육과정이 폐지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어 육군의 인력 운영 측면은 더욱더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표 1> 국방기록관리 교육과정 수료자 및 기록관 근무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기록관 근무	구분	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기록관 근무
계	151	8	79	64	12	2019-1기	12	-	10	2	-
2016-1기	29	3	14	12	-	2019-2기	10	1	6	3	-
2017-1기	28	2	10	16	1<군무원>	2020-1기	7	-	6	1	1<부사관>
2017-2기	15	1	10	4	1<군무원>	2021-1기	12	-	5	7	1<군무원>
2018-1기	9	-	5	4	-	2022-1기	7	-	2	5	4<군무원>
2018-2기	10	1	9	-	-	2022-2기	12	-	2	10	4<군무원>

2.2 군단급 제대의 조직적 특성과 통합 기록관리 체계

육군의 조직체계는 위계적 지휘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상급 제대의 기능이 하급 제대에 축소·반영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군단급 제대는 이러한 위계적 구조 속에서 전략적·전술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제대이다. 국군조직법 및 군단사령부령(국방부, 2018, 대통령령제29321호)에 따르면, 군단은 작전통제에 있어 합동참모의장의 배속하에 있으면서 행정·인사 분야에서는 육군 참모총장의 예속을 받는 이중적 지휘체계를 가진다. 즉, 군단은 지휘·작전·지원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중간 지휘단계로서 상위 제대의 정책적 지침을 실질적 작전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남기웅, 2012). 따라서 군단은 행정과 작전이 교차하는 중심 지점에 위치하며, 예하사단과 여단에서 생산된 방대한 양의 기록이 집중되는 지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단급 제대의 조직적 특성은 기록관리의 효율성 및 통합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사단급 제대보다는 유리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측면에서 군단급 제대는 사단보다 다소 체계화된 조직과 안정성을 갖춘 참모 조직을 운영한다. 특히 4~5개 과가 편성되어 각 임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인사·정보·작전·군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각 기능별 산재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평가할 수 있는 기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작전 임무의 통제와 기록관리의 연속성 측면이다. 육군은 전시(戰時) 상황을 대비하여 관할 기록관에서 평시부터 작전지역을 고려한 중요한 기록물이 보존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지휘소를 특정하고, 전투부대 전개 시 예하 부대에 기록물 수집 과업을 부여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2023). 하지만 사단급 제대는 상급부대 여건조성 작전 및 결정적 작전을 수행하므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된다. 셋째, 물리적·환경적 적합성 측면이다. 군단급 제대는 통상 경비연대와 지역 내 가용한 예비군 및 민·관 등 제작전 요소를 통합하여 군사(軍事) 위주의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한다. 또한 후방지역에 위치한 보급로의 통제대책을 강구하여 전투근무지원을 보장하고, 각종 시설 및 부대의 방호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투력 보존 및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안을 두고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한다(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2007). 이에 군단급 제대는 기본 전술제대인 사단급 제대보다는 물리적·환경적 통제가 용이하고 안정적인 기록보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후송계획을 수립하거나 재난·위급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록관리체계에서 ‘통합’이라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이에 따라 ‘통합기록관’이라는 용어 역시 법률적으로나 또는 공식적인 용어로 정의된 바는 없다. 하지만 최근 연구·제안되고 있는 통합기록관의 모습은 기존의 개별적인 기관 중심 기록관리체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관의 통합은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물리적 통합은 여러 기관의 기록물을 단순히 한 장소에 모으는 행위 또는 시설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기능적 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인력·조직·시설의 재편성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임희연, 2018) 따라서 통합의 개념은 협업 중심의 집중근무 방식을 말하며, 통합기록관은 기관의 특성과 행정체계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집단 운영 형식으로서 기능적으로 통합된 기록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3 권역별 통합기록관 운영 사례: 공군 통합기록관

공군에서는 일찍이 기록관의 통합 운영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신정숙(2018)은 공군 내 분산되어 운영 중인 각 기록관들이 서로 다른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확보와 운용이 제한되는 등 권역 단위의 기록물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군에서는 통합기록관을 구축하면서 ‘통합’의 의미를 기존 예하 부대 기록관이 가지던 이관(수집), 평가심의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2024년 이전 공군에서는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부대별 43개의 기록관을 구성하였고, 기록관별 업무담당을 1인으로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현안업무 대비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고, 독립 전대급 이상 부대 단위별 기록관에는 법령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제한되었다. 특히 공군 예하 부대의 43개 기록관 모두 서고 및 작업실 등 기록물 보존 시설과 향온·항습기, 가스식 소화설비 등 장비의 구축이 제한되었고, 유사시 중요 기록물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분산 보존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현행 법령상 각 43개의 기록관별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했으나, 단 11개 기록관에만 전문요원이 배치되었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없는 기록관은 기록물 평가심 의와 공개 재분류를 실시하지 못해 공공기록물 폐기가 제한되었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직을 일반 행정직 령과 통합관리하고, 동일 보직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인사 교류시키는 인사원칙 적용에 따라 전문화 관리 도 제한되었다.

공군은 다수의 기록관을 운영하면서 보존 서고 등 기록물 보존환경 구축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록물관리 업무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공군에서 전문적·체계적 기록관리를 위해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친 결과, 통합기록관 설립의 기본 방향은 기록관리 전문성 및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의 향상과 시설·장비, 조직(인력) 운영은 슬림화하여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각 사령부·비행단·전대급 부대 기록관을 폐지하고, 기록물관리 전담 조직(북부·남부 통합기록 관)을 구성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 후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였다. 통합기록관을 구축한 공군의 특수 기록관은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 되며, 조직체계는 기록물관리과, 북부 통합기록관, 남부통합기록관으로 구성 된다.

공군은 성공적으로 통합기록관을 구축하고, 의무 배치해야 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43명에서 10명으로 조정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외적으로 기록관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황이 줄었고 그 영향력이 축소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 아니라 기록관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영향력 및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며, 전문자격 보유자의 지속 근무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더 갖추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권역별 통합적인 보존시설을 설치 함에 따라 군 기록관리의 효율화 및 안정화를 실현하였으며, 이는 예산 절감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국방 기록정 보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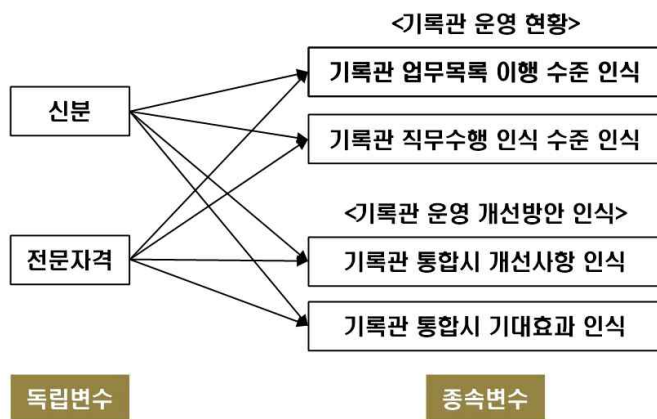
이러한 공군의 통합기록관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분산되어 각 제대의 업무적 통제하에 운영되는 기록관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둘째, 전국적으로 분포된 제대를 전면 통합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 단위의 통합체계를 통해 북부와 남부라는 권역으로 설계하여 통합을 시도하였다. 셋째, 기존 수평적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를 통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상급 제대의 업무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기록물관리 업무에 대한 고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특수기록관인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되었다. 넷째, 기록관을 통합함으로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전문성 및 관리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다섯 째, 공군의 통합기록관은 기록물의 이관, 평가, 보존을 일원화하여 기록의 생애주기 전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함 으으로써 기록관리 품질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3. 육군 기록관의 통합 운영을 위한 인식 조사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및 가설

군은 2018년도에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병력 감축 현상에 대비하여 군의 비전투분야의 민간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군무원의 증원을 들 수 있다. 주로 현역 군인의 신분에서 군무원으로 변화된 직책은 기록관리 담당이 있으며, 현재 육군의 모든 기록관 역시 군인의 신분에서 군무원으로 점차 조정되 어 가고 있다. 하지만 기록관리 업무의 경우,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성향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

어야 하나 이러한 점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군무원은 직렬에 따른 업무만 하기에 다소 군인보다 군무원이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인식의 경향이 있다. 이에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신분과 전문자격의 유무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분과 전문자격 보유에 따라 기록관 운영 현황 중 ‘기록관 업무목록 이행 수준’과 ‘기록관 직무수행 인식 수준’의 차이, 기록관 운영의 개선방안 인식 중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과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한 후 그에 맞는 가설을 세웠다.



<그림 1> 연구 모형

[가설 1] 신분 및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운영 현황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신분에 따른 기록관 업무목록 이행 수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신분에 따른 기록관 직무수행 인식 수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업무목록 이행 수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직무수행 인식 수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신분 및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운영의 개선방안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신분에 따른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신분에 따른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설문조사 구성

설문조사는 육군의 기록관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기록관 운영 현황’과 기록관의 통합 운영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기록관 운영의 개선방안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2>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표 2〉 설문 문항 구성

설문 영역	설문 문항	구성요소	문항 수(개)	선행연구
기록관 운영 현황	기록관 업무목록의 이행 수준	기록관 임무 9가지 수행 정도	14	육군규정153 「기록물관리 및 출판 규정」 (2024. 7. 4.)
	기록관 직무수행 인식	기록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여부, 업무수행에 적절한 규모·시설 여부, 전자적 시스템 구축 여부	6	이홍석(2013), 김영범(2018)
		기록관리 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본인의 업무 중 기록관리 업무의 비중	2	이홍석(2013), 박민영(2021), 이지은·김기영(2020)
		처리과 업무지도·점검 필요성과 제한 요인	2	이지은·김기영(2020), 박민영(2021)
		서고의 온·습도 관리 준수 여부, 서고공간의 적절성 여부, 서고의 체계적 관리 여부	2	신정숙(2018), 이정우(2023)
		업무의 전문성, 전담인력 및 인력 규모의 적정성, 교육 여건 및 성과 관리, 기록물 이관, 평가·폐기 절차 준수 여부	10	-
기록관 운영의 개선방안 인식	기록관의 통합 필요성	사단급 기록관 운영의 문제점	1	이홍석(2013)
		기록관 통합의 필요성 여부, 찬성 및 반대 사유	3	남기웅(2012), 신정숙(2018)
	기록관 통합 운영의 주체	기록관 통합 운영시 적합한 제대	1	남기웅(2012), 전계청(2018)
	기록관 독립 운영의 필요성	기록관 독립 운영의 필요성 여부, 찬성 및 반대 사유	3	-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장기 근무 보장, 제도화, 업무분장, 설비 기준 정비 등 기록관 통합 운영 준비의 필요 요소	9	남기웅(2012), 이홍석(2013), 신정숙(2018), 김영범(2018)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	업무의 전문성 향상, 공간 확보, 예산 절감 효과, 유실 방지, 계획적 업무 추진 등	9	남기웅(2012), 신정숙(2018)

3.3 설문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육군 사단급 이상 기록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인 체제를 유지하는 육군의 기록관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의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8일간 63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실무자에게 전화와 인터넷 이메일로 설문조사에 응답해 줄 것을 협조하였으며, 이후 온라인 설문 링크와 설문지 PDF 파일을 첨부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총 52부(82.5%)를 회수하여 통계에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와 미응답자의 특성을 근무 제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작전사급 1명, 군단급 8명, 사단급 30명, 학교기관은 13명이 응답하였다. 이는 육군 기록관의 대다수가 사단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본 연구의 사단급 기록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응답자는 11명(17.5%)으로 확인되었으며, 작전사급 1명, 군단급(육군 직할 포함) 5명, 사단급 3명, 학교기관 2명이 응답하지 않았다.

3.4 설문조사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KSDC DB와 IBM SPS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통하여 '기록관의 업무목록 이행 수준', '기록관의 직무수행 인식',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 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록관 운영 현황 및 기록관 운영

개선방안 중 명목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기록관 운영 현황 및 기록관 운영 개선방안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기록관 운영의 개선방안(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 항목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비교는 LSD에 BH FDR(Benjamini-Hochberg False Discovery Rate) 보정을 적용하였다. 다섯째, 응답자의 신분 및 기록관리 전문자격 보유 여부에 따른 기록관 운영 현황(기록관 업무목록 이행, 기록관 직무수행 이행)과 기록관 운영의 개선방안(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3.5 인터뷰 구성 및 대상·방법

설문결과에 의한 수치만으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실무자들이 기록관 통합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기를 바라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의 부분 보완을 위해 추가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목적은 기록관 통합 운영에 대한 기준과 이유, 우려되는 점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수집하는 것이기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대면으로 하거나 전화를 시행하였다. 인터뷰는 설문조사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핵심 주제를 통제하면서 인터뷰 참여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풍부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반구조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3인을 선정하였다. 이는 사단급 기록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군단급 기록관으로의 통합을 위한 설문조사의 부분 보완을 위한 것으로 인터뷰 대상자는 각 군단급, 사단급 제대 근무자로서 1년 이상의 기록관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사단급 제대 근무자 대상으로는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 및 방법은 <표 3>과 같다.

<표 3> 인터뷰 대상 및 방법

참여자	성별	현 근무 제대	기록물관리 관련 근무 경력(년)	전문자격 유무	방법	시간(분)
A	남	사단급	1	없음	대면	50
B	남	군단급	1	없음	전화	40
C	여	사단급	2	있음	전화	50

인터뷰의 문항은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록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통합 운영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일반적 특성의 경우에는 인터뷰 대상자의 ‘근무 제대와 근무 경력’, ‘전문자격 보유 여부’에 대한 문항을, 기록관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의 경우에는 ‘기록관의 업무목록 및 직무의 이행 정도와 인식’, ‘기록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록관의 통합 운영은 ‘기록관 통합 운영의 주체, 목적, 독립성, 장·단점, 고려 요소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이후의 분석 단계는 분석, 검토 및 수정, 결과 작성 순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참여자별 전체 녹음 내용을 반복하여 청취 후, 한글 문서에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였으며, 원자료를 여러 번 읽고 추출한 주요 내용을 의미 단위로 메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분석 결과 작성 시 필요한 전사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각 의미 단위에는 별도의 마킹을 표기하였다. 이후 범주 내 의미 단위를 대상으로 유사한 의미 단위는 합치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쪼개는 방식으로 추가 범주화하였으며, 범주화한 내용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의미 구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의미체계가 구축된 범주표를 생성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에게 인터뷰 내용이 잘 전사되었는지 검토를 요청하여 인터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육군 기록관의 통합 운영을 위한 인식 조사 연구결과

4.1 설문조사 결과 분석

4.1.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의 업무목록 이행 수준’, ‘기록관의 직무수행 인식’,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문항	문항수(개)	Cronbach’s alpha	문항	문항수(개)	Cronbach’s alpha
기록관의 업무목록 이행 수준	14	0.941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9	0.916
기록관의 직무수행 인식	부정	5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	9	0.935
	긍정	17			

‘기록관의 업무목록 이행 수준’은 0.941, ‘기록관의 직무수행 인식’에서 부정적 문항은 0.741, 긍정적 문항은 0.865이었으며,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은 0.916,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는 0.935로 나타났다. 보통 Cronbach’s alpha 계수가 0.6 이상~0.7 미만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 0.7 이상~0.8 미만이면 양호한 수준, 0.8 이상~0.9 미만이면 우수한 수준으로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값은 0.741~0.941이었기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양호~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4.1.2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실무자의 성별, 나이, 연령, 계급(직급), 군 재직기간, 근무 제대, 기록관리 업무 기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소지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응답 구분	인원수(명)	비율(%)	특성	응답 구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성	24	46.2	근무 제대	작성사급	1	1.9
	여성	28	53.8		군단급	8	15.4
연령	20세~29세	18	34.6		사·여단급	30	57.7
	30세~39세	27	51.9		학교기관	13	25.0
	40세~49세	5	9.6	기록관리 업무 기간	1년 미만	21	40.4
	50세~59세	2	3.9		1년~3년 미만	19	36.5
계급(직급)	영관장교	7	13.5		3년~6년 미만	7	13.5
	대위	4	7.7		6년~10년 미만	1	1.9
	중·하사	22	42.3		10년 이상	4	7.7
	군무원 6급 이상	4	7.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행정안전부 발행	2	3.8
군무원 7급 이하	15	28.8	육군종합행정학교 발행		8	15.4	
군 재직기간	5년 미만	18	34.6		모두 보유	1	1.9
	5년~9년	21	40.4		없음	41	78.8
	10년~14년	3	5.8				
	15년~19년	5	9.6				
	20년~24년	3	5.8				
	25년 이상	2	3.8				

합 계: 52

육군의 사단급 이상 기록관에 근무하는 기록관리 실무자의 남녀비율은 다소 균등하나 여성이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대는 30세~39세, 20세~29세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20대~30대는 초임 간부이거나 신규임용 군무원이 많은 연령대로서 기록관리 업무 실무자는 대부분 근무 경력이 적은 인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급(직급)은 중·하사, 군무원 7급 이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 재직기간은 5년~9년, 5년 미만 순으로 가장 많았는데, 각 제대별 기록관리 업무의 대부분이 군 재직기간이 길지 않은 초급간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육군의 각 제대별 기록관리 실무자의 직급은 중·하사 또는 군무원 8~9급으로, 특수기록관인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을 제외하고는 1인 기록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기록관리 업무의 직무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무 제대는 육군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사·여단급 기록관 근무자가 많았고, 기록관리 업무 기간은 1년 미만, 1년~3년 미만 순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은 행정안전부 발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3.8%), 육군종합행정 학교에서 발행한 자격으로 군 내에서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8명(15.4%)이었다. 그리고 2가지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명(1.9%)였다. 2016년~2024년 2월까지 국방부에서는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해 군 자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였으나 인사관리 제도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기록관리 업무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1.3 기록관 운영 현황 인식

기록관 운영 현황 인식은 ‘기록관 업무목록 이행 수준과 ‘기록관 직무수행 인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기록관 업무목록 이행 수준’은 <표 6>에서 볼 수 있듯, 14개 항목 중 ‘6) 보안 관리(3.46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 관할 부대(서)의 정보공개 청구 접수(3.35점)’, ‘3) 기록물 인수(3.23점)’ 순으로 높았다. 나머지 11개 문항은 평균 2.42점에서 2.88점 사이로 평균 3점(보통) 수준을 밑돌았다.

<표 6> 기록관 업무목록 이행 수준의 기술통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당해연도 기록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88	1.02	8)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관할 부대(서)의 기록물 관리	2.50	1.04
2) 생산현황 통보	2.83	1.13	9)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이관	2.71	1.07
3) 기록물 인수	3.23	0.94	10) 관할 부대(서)의 정보공개 청구 접수	3.35	0.93
4) 기록물 평가	2.56	1.09	11) 관할 부대(서)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2.54	1.02
5)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2.79	1.07	12) 당해연도 기록물관리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2.56	1.09
6) 보안 관리	3.46	1.04	13) 기록관리기준표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운용	2.42	0.91
7)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	2.52	1.02	14) 기타 (특수)기록관 업무체크리스트에 의한 임무수행	2.54	0.92

다음으로 ‘기록관 직무수행 인식’은 부정적 문항과 긍정적 문항으로 분류하고, 총 2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 문항으로 질문한 응답 결과는 평균 3.62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부정적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5개의 부정적 문항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8) 순환보직이나 겸직으로 인해 기록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가 어렵다(4.19점)’ 였고, ‘5)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3.90점)’, ‘1) 기록관리 외의 업무로 인해 기록관리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3.77점)’ 순으로 높았다. 세부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기록관 직무수행 인식의 부정 문항의 기술통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기록관리 외의 업무로 인해 기록관리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3.77	0.88
2) 기록관리 업무를 하면서 타 조직(부서원)과 업무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	2.87	1.05
5)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3.90	0.98
8) 순환보직이나 겸직으로 인해 기록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가 어렵다.	4.19	0.86
20) 시설·장비 미흡으로 보존 중 기록물의 훼손 위험이 있다고 느낀다.	3.38	1.09

한편, 긍정적 문항의 응답 결과 역시 평균 2.57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아 기록관의 직무수행 인식 수준은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17개의 긍정적 문항 중 ‘4) 기록관리 업무는 매우 중요하며 꼭 해야 하는 업무이다(4.15 점)’가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 문항은 평균 2.04점에서 3.12점 사이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육군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부재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시키며, 기록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부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기록관 직무수행 인식의 긍정 문항의 기술통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3) 기록관 자료를 보존, 활용, 검색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2.33	0.96	14) 기록관리 업무의 메뉴얼이 명확하여 신규 인력도 업무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2.29	0.91
4) 기록관리 업무는 매우 중요하며 꼭 해야 하는 업무이다.	4.15	0.89	15) 기록관리 업무수행으로 인한 직무만족도가 높다.	2.40	0.87
6) 우리 부대 기록관리 업무는 기록관리 전담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2.04	1.01	16) 보존서고의 온·습도 등 보존환경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2.60	1.18
7) 기록관리 업무 실무자의 전문 자격·교육 이수 가 업무에 실제로 반영된다.	2.83	1.02	17) 향온·향습기, 온·습도계, 소화설비 등 필수 장비가 정상 작동하며,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진다.	2.44	1.07
9) 기록업무량에 비해 현재 인력 규모는 적정하다.	2.12	0.96	18) 서고·작업실 등 기록관 공간이 업무량 대비 충분하다.	2.06	1.02
10) 상급부대의 기록관리 업무의 지도·감독은 일관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2.60	1.03	19) 보안과 재난대비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	2.71	1.05
11) 기록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정기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다.	2.35	1.01	21) 이관 절차와 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3.12	0.94
12) 기록관리 업무의 성과가 인사·평가에 적절히 반영된다.	2.10	0.85	22) 평가·폐기 절차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된다.	2.90	1.14
13) 처리과 실무자와의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협업과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2.69	0.92	-	-	-

4.1.4 기록관 통합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인식

기록관 운영의 개선방안 인식은 ‘기록관의 통합 운영 필요성과 운영 주체’와 ‘기록관 독립 운영의 필요성’,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후에는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BH FDR 보정을 적용하였다. 다중비교에 Bonferroni 보정이 아닌 BH FDR 보정을 적용한 이유는 Bonferroni 보정의 경우 다중비교의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 유의성을 보정하기 때문에 비교 항목이 많을 경우 유의성이 크게 과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관 운영의 개선방안 인식의 설문 문항은 비교 항목이 9개이기 때문에 Bonferroni 보정 시 유의확률에 36을 곱해야 하므로 유의성이 과소평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BH FDR 보정을 적용하였다.

먼저, ‘기록관의 통합 운영 필요성과 운영 주체’에 대한 응답 결과, 응답자 52명 중 39명(75.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육군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부재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실무자의 변동, 기록관리 업무 이외의 부수 업무로 인한 부담과 몰입 저하로부터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록관의 통합 운영 주체에 대한 응답은 ‘군단급’이 28명(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단급’ 13명(25.0%), ‘육군기록정보관리단’ 10명(19.2%), ‘여단급’ 1명(1.9%) 순이었다. 기록관의 통합 운영 주체에 대한 응답 중 53.8%를 차지하는 군단급은 사단급 25.0%, 육군기록정보관리단 19.2%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기록관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면 군단급 제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육군의 기록관은 법률에 따라 각급 제대의 기록관은 수평적 관계를 가지지만, 육군이라는 군 조직을 고려했을 때, 소속된 부대와는 수직적 업무관계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앞서 기록관리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가 많은 경우는 사실 수직적 업무관계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관의 운영에 있어서 고유업무인 기록관리 업무를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속부대의 업무적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 통합 운영 시 소속부대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기록관의 업무적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42명(80.8%)이었다. 특히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역할과 책임의 분담 및 전문성 향상’이 34명(81.0%)으로 가장 높았다. 종합하면, 기록관의 독립 운영은 전문성 및 고유성의 향상뿐 아니라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좌우되지 않는 등 업무의 객관성 유지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은 9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4) 보존서고의 향온·항습·소화·보안 설비를 기준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 ‘5) 서고·장비의 통합배치를 통해 공간 효율을 높여야 한다.’가 평균 4.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 기록관 통합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4.46점)’, ‘2) 기록관리 분야의 정기 교육과 자격 기반의 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4.42점)’ 순으로 높았다. 9개 문항별 응답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BH-FDR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문항이 특별히 우선순위가 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요인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인적·물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적인 기록관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세부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차이 분석

문항	평균	표준편차	F(p)	BH FDR 사후검정
1)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장기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	4.29	0.72	2.349* (.042)	n.s
2) 기록관리 분야의 정기 교육과 자격 기반의 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4.42	0.64		
3) 인력 재배치와 업무분장의 개선이 필요하다.	4.21	0.85		
4) 보존서고의 향온·항습·소화·보안 설비를 기준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	4.50	0.61		
5) 서고·장비의 통합배치를 통해 공간 효율을 높여야 한다.	4.50	0.61		
6) 기록관 통합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4.46	0.70		
7) 통합된 기록관의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4.33	0.81		
8)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도점검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4.31	0.73		
9) 권역의 범위, 관할 부대를 포함한 군단급 기록관 운영모델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4.31	0.83		

* p<.05, ns: not significant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에 관한 응답 결과도 마찬가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이며,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1~5점의 척도를 고려했을 때, 9개 문항은 평균 4.25점대로 기록관 통합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록관

리 기대효과는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BH FDR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 전문성 향상(4.37점)’과 ‘7) 기록물의 계획적 수집·이관 업무(4.38점)’, ‘8) 정기적인 기록물 평가·폐기(4.38점)’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으며, ‘3) 예산 절감(4.04점)’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기대하였다. 결국 이를 통해 기록관의 통합은 전문성·공간성·예산 운영·인적 자원 관리·보존성·체계성·서비스 제공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높은 기대효과를 가지며, 이는 기록관 통합이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 차이 분석

문항	평균	표준편차	F(p)	BH FDR 사후검정
1) 기록물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4.37	0.63	3.713** (.005)	3<1.7,8
2) 소장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15	0.72		
3)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04	0.82		
4) 보존서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4.15	0.85		
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다.	4.33	0.83		
6) 기록물의 유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4.13	0.86		
7) 기록물 수집·이관 업무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4.38	0.69		
8) 기록물 평가·폐기 심의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4.38	0.75		
9)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과 기록정보 활용을 높일 수 있다.	4.27	0.79		

* p<.01

4.1.5 신분 및 전문자격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검증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신분 및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운영 현황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신분’에 따른 ‘기록관 업무목록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14개 문항 중 ‘관할 부대(서)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t=2.024, p<.05), ‘기타(특수)기록관 업무체크리스트에 의한 업무수행’(t=2.014,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군무원보다 군인의 인식이 더 긍정적이었다. 둘째, ‘신분’에 따른 ‘기록관 직무수행 이행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22개 문항 중 ‘상급부대의 기록관리 업무의 지도·감독은 일관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t=2.109, p<.05)에 대해 군무원보다 군인의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업무목록 이행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14개 문항 중 ‘생산 현황 통보’(t=-2.206, p<.05), ‘기록물 인수’(t=-2.059, p<.05), ‘기록관리시스템 운영’(t=-2.558, p<.05),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는 관할 부대(서)의 기록물 관리’(t=-2.987, p<.01), ‘관할 부대(서)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t=-2.705, p<.05), ‘당해연도 기록물관리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t=-2.678, p<.01), ‘기록관리기준표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운용’(t=-2.174, p<.05)의 경우, 전문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직무수행 이행 수준’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5개의 부정 문항 중 ‘기록관리 외의 업무로 인해 기록관리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t=2.226, p<.05)와 ‘순환보직이나 겸직으로 인해 기록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가 어렵다’(t=2.895, p<.01), ‘시설·장비 미흡으로 보존 중 기록물의 훼손 위험이 있다고 느낀다’(t=2.191, p<.05)가 전문자격이 없는 집단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17개의 긍정 문항에서는 ‘기록업무량에 비해 현재 인력 규모는 적정하다’(t=-2.302, p<.05)와 ‘기록관리 업무의 성과가 인사평가에 적절히 반영된다’(t=-3.055, p<.01), ‘기록관리 업무수행으로 인한 직무만족도가 높다’(t=-2.663, p<.05), ‘보존서고의 온·습도 등 보존환경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t=-2.269, p<.05), ‘보안

과 재난대비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t=-2.289, p<.05$) 문항에서 마찬가지로 전문자격이 없는 집단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가설 2의 검증을 위하여 신분 및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통합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신분’에 따른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을 분석한 결과, 9개 문항 중 ‘기록관 통합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t=-2.015, p<.05$)에서 군인보다 군무원들로부터 더 강하게 개선 요구가 나타났다. 둘째, ‘신분’에 따른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 신분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9개 문항 중 ‘통합된 기록관의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이 명문화되어야 한다’를 제외한 모든 보기에서 전문자격이 있는 집단의 개선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신분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는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과 수직적 구조의 조직체에 따른 업무적 특성이 반영되었고, 전문자격 보유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는 전문자격이 없는 집단에서 현 기록관 운영에 대해 관대한 성향을 보였다. 특히,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경우 기록관 통합에 대한 기대가 높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았는데, 이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록물관리에 대한 절차와 법적 기준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가설 검증 결과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영향 관계	가설검증	
가설 1	1-1	신분	기록관 업무목록 이행 수준 인식	14개 문항 중 2개 영향 있음.	부분 채택
	1-2	신분	기록관 직무수행 인식 수준 인식	부정적 문항 영향 없음. 긍정적 문항 17개 중 1개 영향 있음.	부분 채택
	1-3	전문자격	기록관 업무목록 이행 수준 인식	14개 문항 중 7개 영향 있음.	부분 채택
	1-4	전문자격	기록관 직무수행 인식 수준 인식	부정적 문항 5개 중 3개 영향 있음. 긍정적 문항 17개 중 5개 영향 있음.	부분 채택
가설 2	2-1	신분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인식	9개 문항 중 1개 영향 있음.	부분 채택
	2-2	신분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 인식	영향 없음.	기각
	2-3	전문자격	기록관 통합 시 개선사항 인식	9개 문항 중 1개 영향 있음.	부분 채택
	2-4	전문자격	기록관 통합 시 기대효과 인식	영향 없음.	기각

4.2 인터뷰 결과 분석

4.2.1 기록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

인터뷰에 응한 실무자들은 대부분이 초임 간부로서 기록관리 분야의 직무수행보다는 부서 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중요한 과업을 할당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직무 분야의 독립성이 없다고 느꼈다.

“기본적으로 부대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모든 행사에 동원되어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기록관리 업무에는 자연스럽게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A)

“개인업무가 있다고 하여 부대 차원에서 받는 사열이라던가 점점, 그리고 중요한 업무들에서 빠지기 좀 곤란스러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록관리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인터뷰 참여자 B)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기록관의 업무목록 이행 정도를 확인했을 때,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실무자는 육군규정에 명시된 기록관의 업무목록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직무 중요도 부분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 기록관리 업무는 외적으로 성과가 발현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오히려 업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부서의 부수 업무를 계속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록물이라는 분야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다 보니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아요.” (인터뷰 참여자 A)

“일단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기록물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아요. 기록물 담당 직책이 가지는 직무 수준이 적다고 느끼니까 편제를 하사 또는 9급 군무원으로 만들었을 테고, 그 임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B)

그래도 기록관리 업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업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민원 업무와 비밀기록물 이관이라고 하였다. 사실 정보공개 청구 접수와 비밀기록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또는 개인 신상에 반드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가 기록업무 실무자구나라고 느꼈던 건 전·후반기 1회씩 하던 비밀기록물 이관이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난감했어요. 부서장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비밀기록물은 보안과 직결되다 보니 잘못 관리 되면 징계가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 비밀기록물 이관은 정말 꼼꼼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A)

“제가 기록 담당 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했던 건 정보공개 청구 민원 업무예요. 아무래도 보존기간 10년의 기록물은 사단에서 보존하다 보니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민원에 대해 잘 대응하지 못하면 부대 차원에서 힘들어지니까 그나마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포함해서 많이 민감해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인터뷰 참여자 B)

부대별 기록관을 운영하면서 제한사항은 보존 장소 및 공간의 제한이었다. 사실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예산도 적을뿐더러 부대에서 기록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나 시설이 별로 마련된 것도 아니다 보니 부서의 별도 공간을 기록관이라고 운영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사단급 이상 기록관은 기록물 기관을 받아 보존기간에 맞게 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하나,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기록물은 전혀 이관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였다.

“처리과에서 생산되는 비전자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을 받아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요. 비밀기록물 보존 장소도 매우 협소한 상태구요. 그러니 일반기록물은 사실 보존할 공간이 제한되는 거죠.” (인터뷰 참여자 A)

“기록관 기준에 못 미치는 공간과 기록물 보관 캐비닛 부족 문제로 기록물 이관 업무는 항상 곤란하죠.” (인터뷰 참여자 C)

4.2.2 기록관의 통합 운영

기록관 운영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를 나눈 후 기록관 통합 운영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모두 기록관 통합 운영의 주체는 군단급에서 하는 것을

기대하였고, 그 기준은 전문성의 강화 측면에서 생각하였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말고는 기록 업무 관련해서 지도해 줄 곳이 없어요. 이럴 거면 군단급에서 기록관을 운영하면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직접 통제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네요. 그리고 예산 지원도 부족해서 기록관의 설비나 장비 지원도 잘 안되고..” (인터뷰 참여자 A)

“아무래도 군단급 제대에서 관리가 된다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C)

기록관을 통합 운영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것이며, 그동안 1인 체제로부터 벗어나 기록물의 생산량과 보존량,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정비와 시설 및 장비의 보완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록관리 업무로 매일 바쁜 건 아니지만 정확하고 꼼꼼하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하는 건 너무 제한되네요.” (인터뷰 참여자 A)

“조금 더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가 마련된다면 좋을 텐데, 사단급 기록관들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드네요. 군단급을 기준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시키면 더 체계적이고 기록관다운 기록관이 될 거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B)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이 육군 기록관리 체계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중심이 되어 기록관의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통제와 표준을 정립하고, 서열 체계의 수직적 업무통제에서 벗어나 기록관의 고유업무를 중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록관이 확장되는 개념이다 보니 예하 사단급 기록물을 이관받아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장비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약 1년 정도 기록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 스스로의 지식이 전문하다는 걸 알았고, 확실히 어느 정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느꼈어요. 그래야 처리과를 지도하고 기록물의 이관, 정리, 평가, 보존 등 일련의 과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구요.” (인터뷰 참여자 A)

“기록관 실무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록관을 통합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사처’ 실무자의 일원으로서 인사처 업무를 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부대 기록물 실무자는 인사처 사무실에 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사처의 중요 업무나 추진 업무들과 혼재되어 함께 할 수밖에 없구요.” (인터뷰 참여자 B)

기록관이 통합 운영된다면 가장 빨리 좋아질 영역은 효율성이라는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육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군 인사관리 제도의 영향으로 일반 행정직군의 직위에 보직을 받게 된다.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군단급 규모로 기록관이 통합되면 아무래도 훨씬 전문성이 커질 것 같구요. 어느 정도 인력 구성이 되면 업무도 효율적

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A)

“사단급 기록관은 1인 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거기다 전문요원도 없어 전문성도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네요. 군단급으로 통합시키면 육군의 전문요원들을 확실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텐데...” (인터뷰 참여자 B)

4.3 분석의 시사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단급 기록관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이관·보존에 이르기까지 부대별 기록관 운영 수준의 편차가 크며, 특히 육군규정에 명시된 기록관의 업무목록의 이행 수준은 설문조사 결과 저조하였다. 또한 기록관의 직무수행 인식 수준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기록관리 실무자 본연의 업무 비중이 할당받은 업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인원은 응답자 52명 중 48명으로 92.3%나 되었다.

둘째, 조직 구조의 취약성과 기록관리 전문성 확보의 한계다. 설문조사에서 기록관 운영의 독립성 확보는 역할·책임의 분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되어 응답자 52명 중 42명(80.8%)이 응답하였다. 이는 기록관리 업무의 경우, 조직 구조에 따른 업무적 통제가 우선되어 후 순위로 밀리게 되며, 평소 기록관리라는 직무 정도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업무적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은 기록관리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비록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군 인사관리 제도에 따라 장기적인 근무가 제한되어 기록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인터뷰에서도 기록관리 실무자는 소속 부서의 하급자 위치로서 부대 행사나 사열, 점검 등의 주요 과업에 우선적으로 동원되며, 기록관리 업무의 성과가 외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등 부서 내에서 직무 수준이 낮은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컸다. 이는 기록관의 통합 운영이 단순히 시설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인사 부서의 업무적 통제를 벗어나 기록관리 업무를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흥석(2013)의 연구에서도 겸직 형태의 기록관리 업무로 업무의 몰입이 힘들고, 기록관 관리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언급된 바가 있다.

셋째, 인력 운영의 구조적 문제는 전문성을 결여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시킨다. 인터뷰 결과, 기록관 담당 업무가 기록관리 지식이 전문한 초임 간부나 신규 임용된 군무원에게 할당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임자의 부재 및 인수인계서 미비는 업무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며, ‘몰라서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는 기록관리 업무가 전문 지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순환 보직을 시행하는 인사제도의 문제와 낮은 직급의 위상으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열(2013)과 박상준(2022)의 연구에서도 군인의 인사관리 제도의 영향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결여 문제가 확인되었다.

넷째, 신분과 전문자격 보유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다. 군인이 군무원보다는 상급·예하 부대의 지도·감독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기록관리 업무 분야의 특정 짓기보다는 군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있고 정형화된 업무가 주이기 때문으로 보였다. 신분이 군인이거나 군무원이더라도 결국 군 인사관리 제도의 변화나 개선이 없다면, 누가 기록관리 업무를 하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신분의 중요성보다는 장기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대체로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 기록관 운영체제에 대해 더 냉정하게 보는 시각을 가졌으며, 기록관 운영의 개선방안 인식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는 기록관리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었기에 현상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물리적 보존환경의 법적 기준 미달이다. 설문조사에서 많은 응답자가 현재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는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항온·항습 시스템 등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한 필수 환경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응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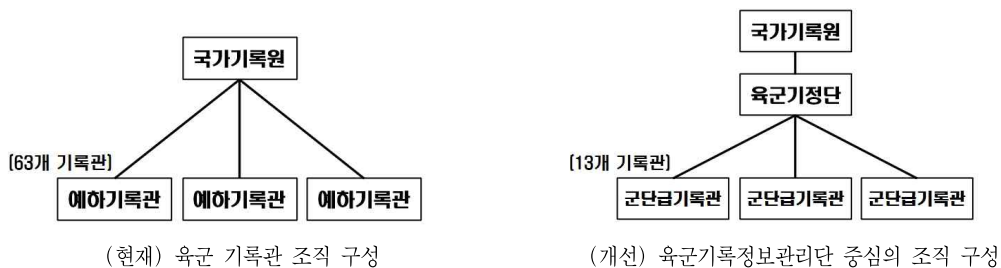
였다. 전계청(2016) 연구에서도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을 제외한 각 제대별 기록관의 경우, 기존의 다른 업무의 목적으로 활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어 기록관이라고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육군에서는 오랜 기간 명목상 기록관 설치 의무만 이행했을 뿐, 고가의 전문 보존시설에 투자할 예산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비전자기록물 보존을 위한 시설의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사단급 기록관의 경우 보존 장소 및 공간의 제한이 가장 큰 고충이었는데, 이는 기록관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존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기록물의 현황 일치화 및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장의 실무자들은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에 동의하면서도 기록물 이관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표했다. 현재 사단급 기록관에 보존 중인 기록물들의 목록과 실물 간의 일치화는 기록관 통합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제도적 정비를 통해 평소 기록관리에 대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5. 육군 기록관의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

5.1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 방안

육군 기록관의 통합 운영 주체는 지휘체계상 작전·행정 기능을 포괄하는 군단급 제대가 적합하다. 군단은 예하 사단을 작전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행정적 지원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대로서 상위 제대의 정책적 지침을 실제 작전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록관이 기관 내에서 실질적인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적 기반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기록관의 조직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의 내부 여건에 따라 조직구조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육군은 특수기록관인 기록정보관리단과 예하 제대의 기록관이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기록관리에 대한 고유업무보다 종속된 부대의 업무적 통제를 주로 받고 있어 기록관리의 고유업무에 제한사항이 많다. 이에 따라 기록관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자체의 독립적인 조직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기웅(2012) 역시 법률을 근거한 육군의 조직구조와 임무를 고려한다면, 군사 작전 임무의 핵심 제대인 군단급에 기록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2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42명(80.8%)이 육군 기록관의 운영에 있어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수직적 조직구조에 따라 소속된 인사 부서의 특성상 부수적인 업무를 분담받아야 하는 등 업무적 통제를 받아 고유업무인 기록관리 업무에 몰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응답자들 모두 소속된 부서의 업무적 통제에 의해 기록관리 업무의 제약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2> 육군 기록관 조직구조 개선

독립 조직으로 구성될 경우, 기록관은 기관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록관은 최소한 ‘팀 단위’ 이상의 독립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과 단위’ 수준의 기구로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기관의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에서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운영’을 별도의 핵심 기능으로 명시하여 기록관의 조직적 위상과 기능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육군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의 기록관리 업무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다.

기록관을 군단급으로 통합 운영할 경우, 해당 기록관은 <그림 3>과 같이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직속으로 별도의 독립기구로 편성되어 업무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더 이상 각 소속 부서의 업무적 통제가 아닌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통제를 받는 독립기구로서 기록물 수집·보존·평가·폐기를 포함한 기록 정보서비스, 교육·연구 등의 기록관리 고유업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처리과에서 곧바로 각급 권역 단위로 운영되는 통합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통제에 따른 평가·폐기 심의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림 3> 군단급 기록관 조직구조 모델

군단은 사단급보다 높은 계층적 위상과 다소 완성된 참모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독립 조직 편성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에 조직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기록관리 예산의 안정적인 집행 및 인프라 구축의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기록관이 단순한 행정지원 조직을 넘어, 군사 작전 및 행정의 증거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현재 사단급 이상 제대에서 운영되는 기록관은 약 63개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인력·시설·예산의 효율적 집중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설문 결과를 통해 현 기록관 체제는 인력·시설·예산 측면에서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없었다. 이에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 방안은 군단이 보유한 작전통제 및 지휘체계의 위치를 활용하여 기록관의 지역적·권역 단위 특징을 고려하여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군단은 예하 사단의 작전을 통합 관리하는 지휘체계 선상의 최종 단계로서, 예하 부대 기록물 간의 연계성 및 완전성을 관리하는데 최적의 제대이다. 이에 따라 현행 63개의 기록관을 지역별·권역 단위, 그리고 부대가 가지는 특성을 적용하여 군단급 단위로 통합하고, 전체 육군 기록관의 수를 총 14개(특수기록관 1개, 기록관 13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육군은 각 지휘계통상의 조직을 유지하며, 기록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군사 작전의 통제가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지휘계통상의 관할 범위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 육군은 인사·작전·군수 등 각 기능별 임무를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구분하며, 이는 부대의 임무와 작전 요소, 지역적 특성 등 제반적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한 것으로 5개 권역별 군단급 기록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할 부대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부대의 작전적 요소를 고려했을 시 제한사항은 극히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 권역 단위 군단급 기록관 운영 모델은 <표 12>와 같다.

〈표 12〉 권역 단위 군단급 기록관 운영 모델

(단위: 개)

구분	계	1권역(동부)	2권역(후방)	3권역(서북부)	4권역(재경)	5권역(서남부)
부대	-	0·0군단	2작전사	0·0군단	육·국직	지작사, 0·0군단
기록관	14	2	1	2	6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포함	3
* 특수기록관(육군기록정보관리단) 1개, 기록관 13개						
관할부대	63	8	8	8	29	10

이러한 지역별·권역 단위 통합은 다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자원의 집중을 통해 기록관별로 최소한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기록보존시설 및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며, 물리적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산 절감의 효과는 반대로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에 기존 63개에 대한 기록관보다 13개의 기록관 운영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집중적인 기록보존시설 및 시스템의 구비가 가능할 것이다. 설문 결과에서도 기록관 통합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정숙(2018) 역시 공군의 권역별 통합기록관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성 증대뿐 아니라 시설·장비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강조하였다.

군단급 기록관 통합 운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록물의 생산 및 수집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예하 사단급 부대의 작전지휘선상에서 발생하는 기록을 통합적으로 수집 관리함으로써 동일 작전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군단에서는 작전 및 통제 기록을 중심으로, 사단은 실제 작전 수행 기록을 중심으로 수집하되 그 연계 기준과 수집 시기를 군단 단위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 및 분류 기준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 각 사단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거나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던 기록의 평가 및 분류 기준을 군단 단위로 통합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군단급 기록관에서 통합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기준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야 기록물의 객관적 가치가 판단되도록 일관성이 확보되고, 장기 보존할 핵심 기록물이 선별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중앙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군단급에서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정보 시스템의 통합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군단급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여 보존 기록물의 전산 관리 환경을 표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록물 검색 및 활용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인력구조 개선방안

육군 기록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의 재편이 필수적이다.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정리, 기술, 기록정보의 관리, 보존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록물관리 기관에는 보존, 정보서비스, 정보(전산)관리 등 다양한 전문인력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앞서 각 통합 운영하게 될 기록관의 인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관리기관 정원의 1/4 이상을 전문요원 자격자로 배치해야 하며, 1/4 이상이 한사람이 되지 않으면 최소 1인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군단급 통합기록관은 현행 운영 중인 기존 기록관의 물리적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군단의 예하 부대인 사단급 4-5개의 기록관을 군단급 단위로 통합 규모화하는 것이므로 조직·

인력 구조는 개편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신원부 외(2019)는 기록관리 인력 산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위 기록물 건당 소요 시간을 기반으로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기록관 업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요원과 실무인력을 기능적으로 분리해야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8개 유형의 기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평균 기록물 생산량 14,066,891권, 기록물 보유량 130,648,812권이 라고 하였을 때, 기록관 소요 인력은 6.4명,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소요 인력은 2.0명으로 산정되었다. 물론 2017년 기준으로 기록물 생산·보유량과 더불어 업무영역별 업무량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기록물의 생산·보유량, 업무량을 포함한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의 소요 인력의 산정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육군 기록관을 군단급 규모로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기록물 양과 처리과 수 등을 고려한다면, 각 군단급 기록관별로 인력구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해 볼 수 있다. 육군의 기록관을 군단급 규모로 통합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처리과 및 기록물 현황으로는 <표 13>과 같다.

<표 13> 군단급 통합기록관 관할 부대, 처리과, 기록물 현황

기록관		관할 부대(세부 현황 보안상 생략)	처리과(개)	생산 기록물(건)
작전사(2)	00사	1개 부대	180	494,340
	00사	8개 부대	430	2,668,809
군단(6)	0군단	4개 부대	343	1,960,623
	0군단	4개 부대	314	1,601,199
	0군단	4개 부대	336	2,011,866
	0군단	4개 부대	343	2,360,050
	0군단	5개 부대	177	1,855,066
	0군단	4개 부대	254	1,226,345
육직(5)	00사	3개 부대	189	822,293
	00사	6개 부대	193	663,111
	00사	13개 부대	750	1,256,884
	00사	1개 부대	261	704,114
	00사	1개 부대	314	814,448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관할		5개 부대	394	790,185
계			4,478	19,229,352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을 한다면, 기존 육군의 63개 기록관을 13개로 통합 조정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역시 축소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수적 축소는 역설적으로 통합기록관으로 집중 배치하여 기록관리 전문성을 안정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통합된 군단급 기록관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슈퍼바이저(supervisor) 역할을 수행하며, 예하 사단의 기록관리를 통제 및 지도하는 핵심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의 적정 인력배치는 해당 기관의 기록물 생산량, 처리 부서 수, 활용 빈도, 보존시설 규모 등에 따라 산정되며, 특히 기록관 업무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실무인력으로 분리되어야 효율적이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 평균적으로 산정된 소요 인력과 「국방기록관 업무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고려했을 때, 육군의 군단급 통합기록관의 경우 예하 4~5개 사단급의 기록관을 통합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인력 편성 및 업무분장은 <표 14>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14〉 군단급 기록관 인력 편성 및 업무분장

(단위: 명)

구분	수행 업무	소요 인원
통합기록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기록관 관할 부대 기록물관리 업무 총괄 • 통합기록관 관할 부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총괄 • 통합기록관 보존서고 운영 총괄 	1
기록물관리계획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수집 업무 총괄 •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 기록물 계획업무 총괄(예산, 부대계획 등) 	1
기록물수집보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수집 • 기록물 평가심의 지원(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의견 작성 등) • 수집 기록물 정리 및 분류, 보존서고 서가배치 및 관리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시스템, 시청각기록물관리체계 등 운영 • 기록관 행정업무, 예산관리 및 집행 	1

군단급 통합기록관에서 기록물 생산량, 4~5개 사단급 기록관 통합 및 수집 업무 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4인 1조의 인력 편성이 필요하며, 관할부대 및 처리과 수, 기록물의 생산량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13개 군단급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머지 인원은 안정적인 실무를 지원할 수 있어 명확한 업무 분담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의 핵심 인원으로써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군 인사관리 제도에 따라 2~3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성열(2013)은 육군 내 기록관리 전문병과 운영 및 군무원 신분의 기록관리 직렬 신설을 주장하였으나 현재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문군무경력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문군무경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인원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채용된 전문군무경력관은 군인, 군무원과 달리 잦은 인사이동과 보직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채용된 직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

5.3 기록관 시설 및 인프라 개선방안

육군의 기록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시설과 기술적 인프라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다수의 부대 기록관은 서고 공간이 협소하고, 기록물의 장기 보존에 필요한 온·습도 조절, 방재·보안 설비, 전산 관리시설 등이 미비하여 육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홍석(2013)과 전계청(2016)의 연구에서도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을 제외한 각급 제대의 기록관의 경우 항온·항습 장비를 포함하여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한 시설·장비의 열악한 환경이 언급되었다. 설문 결과에서도 시설·장비 미흡으로 기록물 훼손 위험성과 기록관 공간이 업무량 대비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인터뷰에서도 보존환경의 열악함으로 일반기록물에 대한 이관을 받지 못하고, 공간 협소로 비밀기록물을 적시에 이관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한계는 기록물의 훼손, 분실, 열람 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기록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 체계의 정착과 더불어, 기록관 시설 및 인프라의 개선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물리적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기록보존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군 기록은 보안과 장기 보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방호·방재·보안 기능이 강화된 다음 전용 기록보존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군 기록관은 일반 사무실 내에 소규모 보관 공간을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 시에는 별도의 독립 건물 형태의 기록보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험 및 재난

상황을 대비한 보안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군단급 기록관은 군사 작전 관련 중요 기록물을 관리하므로, 물리적 침입의 차단과 더불어 전자적 보안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입통제시스템, CCTV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화재·침수 감지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중요 기록은 이중 잠금장치와 보안등급별 접근제한이 가능한 전용 서고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재난 대비용 비상 이관시설을 군단급 기록관별로 지정하여, 화재·침수 등으로 인한 기록물 손실 우려 시 즉각적인 이관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업무 공간을 표준화하여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각 기록관은 단순 서고 기능을 넘어 정리·평가·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과 이용자 열람실, 장비실 등을 분리·표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록물의 물리적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보존환경과 작업환경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이다.

5.4 기록관의 통합 운영 단계별 추진 방안

군단급 기록관의 통합 운영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다. 기존 50여 개의 사단급 기록관의 임무를 해제하고,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 포함한 장비, 물자 등을 이동해야 하며, 군단급 규모로의 기록관을 구성하기까지는 장기간 단계적 절차를 밟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기록물 이관에 있어 생산현황 목록 일치화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총 4단계의 로드맵을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보장된 가운데,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이 성공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먼저, 1단계는 예하 사단급 기록관의 임무를 해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육군에서는 기록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하며, 기존 운영 중인 기록관들은 군단급 통합기록관의 한시적 서고의 개념으로 운영하면서 기록물의 현황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2단계는 보존서고를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1인 체제로 운영되던 기록관들은 노후된 장비와 서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 지원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보존서고의 정리는 군단급 통합 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3단계는 실질적으로 사단급 기록관을 군단급 기록관으로 통합시키는 단계로 모든 보존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기간을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누락되거나 훼손되는 기록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4단계는 각 군단급 통합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와 실질적인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계로 군단급 통합기록관의 안정화에 들어가는 것이다. 각 기록관에서는 예하 부대 기록물 이관체계, 기록물관리실 서고 배치 기준 정립 등 부대별 특성에 맞는 기록물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육군의 각 세대별 기록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 기록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육군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육군의 사단급 이상 기록관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육군 기록관의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관리 업무 분야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군단급 통합기록관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직속으로 별도의 독립기구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육군의 63개 기록관은 지역별·권역 단위, 부대 특성을 고려하여 13개의 군단급 통합기록관으로 조정·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관의 통합 운영은 제도적으로 기록물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기능적 집중화를 통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록물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록관 업무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실무인력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단급 통합기록관은 최소 4인 1조의 인력을 편성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군무경력관

제도를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록관 시설 및 인프라 개선방안으로 기록보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 시설을 개선하고, 위험 및 재난 상황을 대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보존환경과 작업환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 공간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기록관의 통합 운영은 사단급 이하 기록관 임무를 해제한 후, 보존서고 정리, 기록관 통합, 기록관 운영의 안정화 순으로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보장된 가운데,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육군 기록관리 조직개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군에서 추진해야 할 기록관리 정책의 방향은 인사관리 제도뿐 아니라 기록관의 통합 운영이라는 조직구조의 재편과 거버넌스 확립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록관리 업무의 독립성 확보는 향후 군 기록관리 규정 개정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인력 분야의 효율적 운용과 기록보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기존 1인 기록관 체제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단절 문제는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록관의 군단급 통합 운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집중 배치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군무경력관 제도 도입을 통해 직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현대화된 보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 기록물의 훼손과 분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기록관리 업무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육군의 기록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에 그쳤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군 기록관 운영 체계의 제도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후속 연구는 육군의 특수기록관인 기록정보관리단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와 군단급 통합기록관의 인력구조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등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진영 (2018). 국방기록물관리기관의 전략적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5, 97-133.
<https://doi.org/10.20923/kjas.2018.55.097>
- 국방부 (2015). 국방기록관리 업무체계 개선 방안(기록물 전문요원 양성을 통한 적법성 확보).
- 국방부 (2017). 국방기록관 업무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2007). 야전교범 9-2: 군단 2007. 12. 31. (11-1580001-000556-01).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2023). 운용교범 1-0: 인사 2023. 3. 31. (36-158E001-012033-14).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2024). 기록물관리 및 출판규정(육군규정153). 육군본부.
군단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9321호
- 김현정 (2012). 군 기록물관리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남기웅 (2012). 육군 기록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노미혜 (2022). 군 기록관리 성공요인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상준 (2022). 국방기록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서승순 (2006). 육군 기록물관리실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서원일 (2004). 육군 기록물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서은아 (2018). 공군 기록물관리체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신원부, 임신영, 추병주 (2019). 기록물관리기관 소요 인력 산출 기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62, 77-107.
<https://doi.org/10.20923/KJAS.2019.62.077>

- 신정숙 (2018). 공군기록물의 권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이성열 (2013). 육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이지은, 김기영 (2021). 육군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97-116.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097>
- 이홍석 (2013). 육군 사단급 부대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임희연 (2018). 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기록학연구, 58, 31-63.
<https://doi.org/10.20923/kjas.2018.58.031>
- 장지현 (2011). 육군 기록관리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특수기록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전계정 (2016).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최운태 (2012). 육군 기록물 관리의 실태와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Yoon-tae (2012). Development Plan for Record Management in the ROK Arm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Korea.
- Corps Command Order. Presidential Decree No.29321.
- Jang, Ji-hyun (2011). A Study on How to Develop the Army Archives Management.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Korea.
- Jeon, Kye-cheong (2016). Research on Professional personnel for Army Archive Management. Doctoral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 Kang, Jin-young (2017). A study on strategic management model of national defense records center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5, 97-133. <https://doi.org/10.20923/kjas.2018.55.097>
- Kim, Hyun-jung (2012). A Study on How to Develop the Military Archives Management.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Korea.
- Lee, Hong-seok (2013).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Division Records Management and Methods to Improve.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Korea.
- Lee, Ji-eun & Kim, Gi-yeong (2021). A study on the awareness of records manag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army personnel: From a viewpoint of new institutionalis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1(1), 97-116.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097>
- Lee, Seong-yeol (2013). An Investigation of Effective Operations of Professional Records Managers.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Korea.
- Lim, Hee-yeon (2018). A new model of records centers, integration archives: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 office records center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8, 31-63. <https://doi.org/10.20923/kjas.2018.58.031>
-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2015). Plan to Improve the Defense Records Management System(Ensuring legality through the training of records specialists).
-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2017). A Study on Measures to Enhanc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National Defence Archives.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my, Army Headquarters (2007). Field Manual No.9-2: Corps 2007. 12. 31. (11-1580001-000556-01).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my, Army Headquarters (2023). Operational Manual No.1-0: Personnel affairs 2023. 3. 31. (36-158E001-012033-14).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my, Army Headquarters (2024). Records Management and Publication Regulations.(Army

- Regulations No.153). Army Headquarters.
- Nam, Gie-wong (2012). A Study on Improvement of Army Records Management System.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 Noh, Mi hye (2022).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ctors for Success in Military Records Managem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k, Sang-jun (202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nse Record Management System.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Korea.
- Seo, Eun-ah (2018). A Study on the Air Force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ment.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Korea.
- Seo, Seung-soon (2006). Management Conditions and Development Plan ofr Records Centers in the ROK Army: Focusing on K Command and Subordinate Unit.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Korea.
- Seo, Won-il (200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rmy Archives Management System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Korea.
- Shin, Jeong-sook (2018).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Intergrated system for Air Force Records.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Korea.
- Shin, Won-boo, Lim, Sin-young & Chu, Byung-joo (2019). A study on criteria for the manpower required by records management in the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2, 77-107. <https://doi.org/10.20923/KJAS.2019.62.077>